

# 2천년대 장가가기 어렵다

性比불균형 심화 99年 6명중 1명 짝 못구해

## 보사부 國監자료

계속된 남아선호 현상 등으로 내년부터 결혼전령기의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지기 시작, 오는 99년에는 남자 6명중 1명이 신부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보사부가 7일 통계청 자료를 인용,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결혼전령기(남25~29세·여20~24세)의 남자는 올해 현재 여자 1백명당 96.9명이거나 내년에는 1백1.3명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결혼전령기의 남녀성비(性比)불균형은 2000년 갈수록 심화돼 여자 1백명당 남자가 97년 1백14.0명, 98년 1백19.7

명으로 증가하고 99년엔 1백21.7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2000년대에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돼 2005년엔 총각 1백10명중 10명가량이 산술적으로 신부감을 구하지 못하는 등 상당기간 「신부기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인식 때문에 인산

부들이 태아성별검사를 한 뒤 여아로 확인되면 중절수술을 해 자업전인 성비균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사부관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상 결혼연령의 폭이 넓어 단기간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남아선호인식이 계속되면 신부기근이 큰 사회문제가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